여수시 '온실가스 줄이기' 팔 걷었다

민관산학 협의체 구성 전국 최초 '자율저감 지역행동 계획' 수립

'기후 국제 시범도시'인 여수시의 온실가스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가 전국 최초로 '온실가스 자율저감을 위한 지역행동 계획(이하 행동계획)'을 수립해 온실 가스 감축에 나선다.

25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행동계획은 산업분야와 비산업분야 등 2개 분야로 나눠 산업체와 시민들이 실천해야 할 온실가스 저감 행동과제와 방안들을 제시한다.

산업 분야 행동 계획은 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 기술개발과 에너지 효율개선 ▲공정개선 ▲고효율 기기설치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의 권고사항들이다.

비산업분야는 시민들이 주체가 돼 생활속에 실천할 수 있는 ▲도보나 자전거 이용 ▲대중교통 이용 ▲난방온도 낮추기 ▲에너지 효율화 건축 ▲신재생에너지 이용 등으로 이뤄졌다.

시는 이를 위해 국비와 시비 1억1000만 원을 들여 시민단체, 공무원, 산업체, 교수 등 6개 분과위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2월 행동 계획이 완성되는 대로 대대적으로 이를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그동안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로 지정받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 259만 2000 t (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10%)의 감축목표를 설정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일련의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특히 시민 탄소포인트제를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설치 ▲옥상녹화 ▲CNG(압축 천연가스)버스 도입 ▲ITS(지능형 교통체계)구축 ▲U-BIKE 공영자전거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시책들을 추진해 성과를 거뒀다.

여수산단도 35개사가 자발적 감축 협약을 맺고 시설공정 등 개선을 통해 140만 2000t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했고, 9개사가 탄소배출권 거래시스템 운영과 CDM(청정 개발체제) 사업 등 자구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여수산단의 공장 증설로 이산화탄소량은 2000년 2002만2299t이던 것이 해마다 증가해 2008년에는 2503만7563t으로 매년 증가해 감축 노력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수시 1인당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전국 평균 10.24t 보다도 무려 7배나 많이 배출되고 있다.

김충석 여수시장은 "이번 지역행동계획 수립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대대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며 "온실가스 저감 행동은 산업체와 시민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생활화할 때 성공할 수 있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최근 1인당 탄소배출량 추이를 보면 광양시를 비롯한 포항시 남구, 울산 남구 순으로 최대량을 배출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녹차밭의 겨울 보성 녹차밭을 찾은 관광객들이 설경(雪景)을 감상하고 있다. 엄동설한에 쌓인 눈 더미 사이로 보이는 차나무의 싱그러운 이파리가 생명의 강인한 기운을 느끼게 한다. 〈보성군 제공〉

장성교육지원청 공공기관 청렴도 전남 시군중 1위

장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옥)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의 공공기관 대상 청렴도 평가에서 도내 22개 시·군 지역교육지원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전국 169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7위를 차지, 투명한 행정 집행을 통한 비리없는 기관으로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장성교육지원청은 전년도 대비 0.21점이 상승한 8.67점을 받았다.

장성교육지원청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학부모와 지역민들이 함께하는 '청렴 행정 AS 센터'를 운영하고 명예감독관제, 예산집행 모니터단 등 민관 협력체계를 구성·운영하는 등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종옥 교육장은 "청렴 장성 교육 실현을 위한 고강도의 반부패·청렴대책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진도 울돌목에 '명량대첩 승전광장' 조성

오늘 착공식…60m 높이 전망대도

오는 2013년 진도에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 승전광장과 전망대가 조성된다. 〈조감도〉

진도군은 정유재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로 133척의 왜선을 무찌른 명량대첩지 울돌목에 110억원을 들여 '명량대첩 승전광장'을 조성한다.

진도군은 26일 오후 3시 군내면 녹진리 진도대교 현장에서 주민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승전광장 조성공사 착공식을 갖는다. 군은 군내면 녹진리 일대 1만1988㎡에 2013년 12월까지 승전광장과 전망대, 건립기념관, 레스토랑 등 건축물을 조성하게 된다.

특히 높이 60m 규모의 전망대(지하 1층·지상 7층)는 강화유리를 설치, 물살이 세고 소용돌이치는 294m의 울돌목과 우리나라 최초 쌍둥이 사장교인 진도대교의 장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개발사업'의 하나로 진행된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명량대첩 승전광장이 조성되면 울돌목 명량대첩지, 강강술래 터, 벽파진 등 이순신 장군 관련 유적지와 진도대교 등 기존 관광자원을 연계한 새로운 관광테마 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초당대 중국에 합작대학 설립 하남성 하남교육대학에

초당대학교가 중국에 합작대학을 설립한다.

초당대 김병식 총장은 최근 중국 하남성 정주시 하남교육대학을 방문해 양 대학간 교육합작대학을 하남교육대학내에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한·중 합작대학의 명칭은 중국의 하남성을 상징하는 글자인 예(豫)를 포함해 '예·한(豫·韓) 대학'으로 정했다.

양 대학의 교육합작 프로그램은 중국 현지 합작대학에서 3년 과정을 이수하고, 이후 본교에서 각각 2년, 3년 과정을 이수하는 ▲3+2(학사학위 과정) ▲3+3(석사학위 과정) 방식으로, 양 대학의 학위를 받게 된다.

개설 학과로는 ▲상무한국어 ▲기업경영관리 ▲컴퓨터통신설비 등 3개 전공이다. 한·중 합작대학인 예·한(豫·韓) 대학'은 내년 9월부터 학생을 모집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중국 하남교육대학은 중국 하남성 성도인 정주시에 위치한 국립대학으로, 초·중등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1955년에 개교했다. 현재 6000여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인문학부, 사회학부, 이학부 등 38개의 전공이 설치돼 있다./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멜론·사과 소주 개발 곡성군 상품화 성공

곡성군이 최근 지역 대표 농산물인 멜론과 사과를 이용한 증류식 소주를 개발했다.

곡성군은 지난 6월부터 6개월간 쌀을 주원료로 해 멜론, 흑찰옥수수, 사과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첨가, 5가지 증류식 소주제품을 개발했다. 군은 이 가운데 선호도가 높은 멜론소주와 사과소주를 상품화하는데 성공했다.

군은 개발된 소주를 생산하기 위해 내년에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전통주에 대한 제조 전수교육을 실시하고 5억원을 들여 완제품 생산시설 설비를 구축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고흥군 임창호 포두면장 후진양성 위해 명예퇴직

고흥군 임창호 포두면장(58)이 후진 양성을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지난 1973년 공채로 군 대서면사무소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임 면장은 정년 1년 6개월을 남긴 상태에서 '후배들의 길을 열어주고 싶다'며 아름다운 퇴장을 선택했다.

고흥 포두면 출신인 임 면장은 1996년 수산과 수산보호담당과 해양개발담당, 해양수산과장 등을 역임하는 등 38년간의 공직생활 동안 주로 해양수산 분야를 담당해 왔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ju@

순천 향매실마을·강진 달마지마을 대한민국 '색깔있는 마을' 선정

순천 향매실마을과 강진 달마지마을이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한 '제 1회 대한민국 농어촌 마을대상'농어촌마을 가꾸기 부분에서 '색깔있는 마을'로 선정됐다.

순천시 월등면 계월리 향매실마을은 46년 전부터 매화나무를 심어온 산촌마을로, 79가구 169명이 참여해 특산품 개발·향매실 축제 등을 통해 열악한 환경을 극복, 연 10억 이상의 소득을 창출한 점이 높이 평가돼 국무총리 표창과 함께 4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강진군 성전면 송월리 달마지마을도 57가구 110명의 주민들이 마을조직을 구성하고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매년 방문객이 급증하는 성과를 올려 장관 표창과 2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한편, 농림부는 시각 장애에도 불구, 농어촌 노인을 대상으로 침술과 자연요법 봉사활동을 펼친 여수시 이정수씨에 대해서도 재능 기부자 부문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 선정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 새얼굴

"주민 공감 치안 만족도 높이겠다"

윤성현 완도해양경찰서장

"완벽한 해상치안 질서확립으로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되겠습니다."

최근 부임한 윤성현(45) 완도해양경찰 서장은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바다가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주민 공감 치안행정'으로 주민만족도를 높이겠다"며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완도해경 이미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서장은 지난 2003년 해양경찰청 경정으로 해양경찰에 첫발을 내디딘 후 본청 기획담당관, 발전전략단장, 미국해안경비대(USCG)파견근무, 국제협력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